

스바냐 1강

스바냐 1:1-13

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

I. 하나님은 세상보다 교회를 먼저 보신다

- 우리는 세상의 죄를 쉽게 정죄하지만, 하나님은 먼저 **그분의 백성**을 돌아보신다.
- 스바냐서는 **유다**, 즉 “언약 백성”을 향한 말씀이다.
-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**책망**하신다(계 3:19).

II. 가까운 자에게 진리를 말하라 (1:1)

스바냐 1:1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
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

1. 네 대의 걸친 족보 : “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”

나훔 1:1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
하박국 1:1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
요엘 1:1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
예레미야 1:1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

-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, 즉 **왕족 출신**이었다.
- 그는 자기와 같은 왕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(**슥 1:8**). → “방백들과 왕자들”

2. 스바냐와 같은 예레미야와 예수님

- 예레미야도 제사장으로서 동료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다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.

예레미야 26:8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

- 진정한 교회는 **서로 권면하는 공동체**이다(마 18장).

골로새서 3: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...
데살로니가전서 5: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
히브리서 3: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

III.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다루신다 (1:2-6)

1.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선언

스바냐 1: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

- ‘진멸하다’ (히브리어 יָדָן) “쓸어 담다, **완전히 제거하다**”는 뜻(2절에 2번, 3절에 2번 사용됨).
-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가 **역전**된다(**슥 1:3**). → “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” 때문에.
(창조 : 바다의 고기 → 공중의 새 → 짐승 → 사람) // (심판 : 사람 → 짐승 → 공중의 새 → 바다의 고기)
- 죄의 결과는 **창조 전체의 붕괴**다. → “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느니라”(창 3:17)

2. 좁혀지는 하나님의 시선

스바냐 1:4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...

- 하나님의 시선은 **온 세상에서** 유다와 예루살렘, 곧 **교회로** 좁혀진다.
- 하나님은 세상보다 먼저 언약 백성의 신앙 상태를 다루신다.
- 왜? 하나님은 '**여호와**' 하나님이기 때문이다(여호와를 강조하는 스바냐서). → “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”
- 신약에서도 동일한 언약적 원리

마태복음 15: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

로마서 1:16 ...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

IV. 혼합된 신앙과 냉소적 믿음을 버리라 (1:4-6, 12)

스바냐 1:4-6 ⁴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 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⁵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⁶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

1. 혼합된 신앙

- 유다의 죄는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**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죄**다.
- 하나님은 이런 ‘두 마음’을 **영적 간음**이라 부르신다.

마태복음 6: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

2. 냉소적 믿음

스바냐 1:12 그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

- 종교적 형식은 있지만, 하나님의 **실제 역사에 대한 믿음을 잃은 신앙**
- 하나님이 ‘있다’는 것은 믿지만, ‘지금도 일하신다’는 것은 믿지 않는다.

V. 심판은 끝이 아니라 초대다 (1:7-13)

- 하나님은 ‘**진멸**’을 선언하시지만,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**회복의 기회**이다.
- 스바냐의 예언 직후, 요시아의 개혁이 일어났다. → 산당을 헐고, 율법책을 회복하며, 유월절을 지킴(왕하 23장)
- 유월절은 심판이 구원으로 바뀐 사건이다. 회개한 자에게 **심판의 날은 은혜의 날**이 된다.

기도제목

1. 나의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,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게 하옵소서.
2. 우리의 두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.
3. 식어진 믿음을 다시 불태워 주옵소서.